10.15686/fkl.2025..64.340 OPEN ACCESS

제주 4·3과 고양이 상자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타난 양자 은유의 의미

우미영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교수

목차

1 서론: 역사의 트라우마와 서사의 실천
2 세계의 일부로서 관찰자와 관계주체
3 양자중첩으로서 ‘생각하다’와 사건의 현재성
4 ‘눈[雪]’의 의미와 역사의 트라우마 재현
5 결론: 제주 4·3의 빈자리와 역사의 밤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강의 소설『작별하지 않는다』에 나타난 양자역학적 은유를 통해 제주 4·3의 서사화 방식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소설은 '슈뢰딩거의 고양이'와 같은 양자중첩의 원리를 문학적으로 전유하여 역사적 사건의 재현 불가능성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한다. 작품에서 반복되는 '생각하다'라는 서술어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와 유사하게, 생각하는 행위가 대상의 존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눈'의 이미지는 전환의 매개체, 복합 상태의 표현, 순환과 연결의 상징, 그리고 역사적 트라우마가 개인의 삶에 침전되는 방식을 형상화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관찰자와 관찰 대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관계주체'로서, 제주 4·3이라는 사건을 단일한 해석으로 고정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이 공존하는 중첩 상태로 경험한다. 특히 '세천리의 밤'이라는 시간은 역사적 사건이 관찰되기 이전의 중첩 상태처럼,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열린 가능성의 시간으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소설은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 불가능성을 넘어 과거 사건의 현재성과 다층성을 깊이있게 성찰하는 윤리적·정치적 태도를 제시하며, 역사의 '빈자리'를 통해 새로운 해석과 기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국문핵심어: 제주 4·3, 역사적 트라우마, 슈뢰딩거의 고양이, 관찰자, 관계주체, 양자중첩, 양자 은유

1 서론: 역사의 트라우마와 서사의 실천

한강의『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을 배경으로 삼고 있지만 단순한 역사적 재현을 넘어서 트라우마와 기억의 문제를 서사적으로 실천한다.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고, 관찰과 기억의 방식에 따라 사건이 형성되고 해석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이 작품에서 트라우마는 단순한 병증이나 상처가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점이 되어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1]『작별하지 않는다』의 서술

1 애쉴리 컨솔로에 따르면 취약성(vulnerability) 곧 상처입을 가능성은 타자에게 열리는 기

자는 『소년이 온다』 집필 이후 휴유증에 시달리는 작가-서술자이다. 제주 4·3 혹은 그 장소로 향하는 동력은 이로부터 발생한다.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된 힘이다. 본 논문에서는 트라우마의 글쓰기 혹은 글쓰기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끌어내는지, 이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읽어보고자 한다. 역사적 사건과 서사의 관계를 분석하며, 특히 역사적 재현의 방식으로서 양자역학적 사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한강 문학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타난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 가능성과 불가능성이 논의의 중심이다. 논자들은 이 작품들이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넘어, 재현 불가능성 자체를 문학적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연정은 『소년이 온다』에 대해 "증언 불가능성 자체"를 재현함으로써 역사의 아포리아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2] 황정아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서술자의 자기 고통이 역사적 피해자의 고통을 희미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3] 이에 대해 김예령은 『작별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감각과 모호한 판별이 공존하는 독특한 시공간을 통해 일반적 애도 서사와 차별화된다고 반박했다.[4] 나보령은 두 작품이 역사적 고통의 문학적 재현을 모색하는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소년이 온다』는 증언 불가능성을 정면 응시하는 반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대리인-혼'을 통한 간접 증언을 시도하는 서사 전략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5] 김영찬은

회이며, 윤리적·정치적 행동을 위한 담론 공간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다. Edited by Ashlee Cunsolo and Karen Landman, *Mouring Natur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7, p.13.

2 조연정, 「'광주'를 현재화하는 일」, 『대중서사연구』 제33호, 대중서사학회, 2014, 124-129쪽.

3 황정아, 「'문학의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비평』 제49권 4호, 창작과 비평사, 2021, 25-26쪽.

4 김예령, 「아니, 아니라는 사랑의 수행-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제29권, 문학동네, 2022, 89-96쪽.

5 나보령, 「두 갈래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의지-『소년이 온다』와 겹쳐 읽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7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2, 52-55쪽.

작가를 닮은 화자를 통해 픽션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메타서사가 역사적 트라우마의 현재적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고 분석했다.[6]

이러한 논의들은 한강이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는 과정에서 윤리적 고민과 서사적 실험을 지속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논의들에서 '불가능성'은 종종 모호한 감각이나 환상성의 영역에 머물며, 역사적 사건의 비가시성과 서사의 한계를 인식하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제주 4·3의 역사적 논쟁과 정치적 맥락 속에서 『작별하지 않는다』가 취하는 입장과 기존 역사적 담론과의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와 관련하여 오태호는 김숨과 한강의 소설을 증언 문학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며, 두 작품이 역사적 비극을 현재화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윤리적 애도의 실천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7] 손정수는 『작별하지 않는다』를 단순히 '제주 4·3 서사'로 한정짓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 작품이 제주 4·3을 넘어 보도연맹 학살을 포함한 진행 중인 역사적 고통 전반을 포괄한다고 지적했다.[8] 나아가 김영찬은 이 소설을 "불가능한 장소에서 펼쳐지는 고통의 미메시스와 글쓰기의 드라마"로 규정하며,[9] 나보령은 직접적 증언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된 다양한 간접 증언 형식들의 콜라주가 재현의 불완전성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서사화한다고 분석했다.[10]

둘째, 신체와 폭력, 개인적 트라우마와 저항의 서사에 대한 연구도 한 축을 이룬다. 이는 주로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신체를 매개로 폭력과

---

6 김영찬, 「불가능한 장소에서, 고통의 미메시스와 글쓰기의 드라마 –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83쪽.

7 오태호, 「역사적 비극을 서사화하는 '애도로서의 치유' 지향 소설 연구-김숨의 『떠도는 땅』(2020)과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2021)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제7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274-278쪽.

8 손정수,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세계—역사적 사건을 모티프로 한 최근 한국소설에 내포된 로맨스의 계기와 그 의미」, 『문학동네』 제30권, 문학동네, 2023, 100-101쪽.

9 김영찬, 앞의 글, 79쪽.

10 나보령, 앞의 글, 55-59쪽.

억압에 저항하는 개인의 내면적이고 존재론적인 갈등을 분석하거나 폭력의 구조적 차원과 개인적 트라우마의 관계를 사회적 맥락에서 조명했다. 신수정은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채식' 모티프에 주목하여, 이것이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폭력에 대한 거부와 저항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으며,[11] 전성욱은 '식물-되기' 과정을 구조적 폭력에 맞선 반-구조적 저항의 통과의례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은 『채식주의자』가 개인적 트라우마의 신체화와 침묵 또는 자기파괴를 통한 저항의 서사임을 보여준다.[12]

셋째로, 문학적 서사 방식과 미학적 요소들—메타텍스트성, 분신 구조, 색채 이미지 등—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흐름에서는 한강의 시적인 문체와 다중적 서술 기법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허물고, 독자로 하여금 윤리적이고 미학적 성찰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양현진은 한강의 최근 작품들에 나타난 메타텍스트성과 치유의 서사를 분석하며, 『소년이 온다』 이후 '고통의 재현'에 대한 한계 인식이 새로운 형식 실험으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형식적 실험은 여러 서사 전략으로 구체화된다. 특히 작가를 닮은 1인칭 화자 도입과 극중극 형식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면서 트라우마를 재현하는 작가의 고뇌와 새로운 치유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했다.[13] 또한 『채식주의자』의 피와 푸른빛, 초록 이미지나 『작별하지 않는다』의 '하얀 눈' 같은 색채 이미지는 중요한 상징으로 기능한다.[14] 전성욱은 한강 소설에 등장하는 '귀신'이 리미널한 존재로서 공동체의 죄의식과 책임을 환기한다고 분석했다. 망자를 통한 서사는 재현의 한계와 윤리를 담아내는 효과적인 장치로 이해된다.[15]

---

11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문학과 환경』 제9권, 문학과 환경학회, 2010.

12 전성욱, 「리미널리티 존재자로서의 '귀신'과 커뮤니타스: '사회적 드라마'로 읽는 한강 소설의 의미」, 『감성연구』 제25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2, 304쪽.

13 양현진, 「한강 소설의 메타텍스트성과 치유의 서사-〈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2015), 〈작별(2018), 『작별하지 않는다』(20211)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8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4, 221-247쪽.

14 윤정화,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흰' 색채 이미지와 변이 양상」, 『비평문학』 제78호, 한국비평문학회, 2020, 243-268쪽.

15 전성욱, 앞의 글, 303쪽.

한강 문학에 대한 논의들은 작가가 내용적 측면뿐 아니라 형식적 차원에서도 트라우마와 기억을 다루는 새로운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작가가 역사적 트라우마, 신체와 폭력, 그리고 다양한 서사적 실험을 통해 불가능한 재현의 가능성을 모색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재현 불가능성의 윤리적 차원이나 미학적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역사적 사건 자체가 지닌 복잡한 맥락과 그 사건이 어떻게 서사화 혹은 현재화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의 논의들을 보완하기 위해 역사적 트라우마와 그 재현 문제를 양자역학적 은유를 통해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실험'은 에르빈 슈뢰딩거가 1935년에 제안한 것으로, 밀폐된 상자 안에 고양이와 독가스 장치를 넣고, 방사성 원자의 붕괴에 따라 독가스가 방출될 수 있게 한 가상 실험이다. 양자역학의 해석에 따르면,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로 간주된다. 이 사고실험은 관찰 행위가 대상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양자역학의 핵심 원리를 보여준다. '양자 중첩(quantum superposition)'은 한 입자가 여러 가능한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원리로, 관찰되기 전까지 다양한 확률적 가능성들이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역사적 사건이 단일한 해석이나 의미로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해석과 기억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틀로 활용된다. '파동함수 붕괴(wave function collapse)'는 관찰 행위를 통해 중첩된 상태가 하나의 특정 상태로 결정되는 현상으로, 관찰자의 개입이 대상의 상태를 결정짓는 과정을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자역학적 개념들을 단순한 과학의 개념이 아닌 문학적 은유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특정 해석이나 기억이 선택되고 고정화되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트라우마와 기억, 삶과 죽음의 상태가 중첩된 채 존재하다가 기억과 증언이라는 관찰자의 행위에 의해 특정 의미로 현실화되는 양상은 양자중첩의 문학적 은유로 볼 수 있다. 중첩성은 다양한 해석의 공존 가능성을, 관찰자 효과는 기억과 서술 행위의

16 존 그리빈, 박병철 옮김, 『슈뢰딩거의 고양이를 찾아서』, 휴머니스트, 2020, 278-283쪽.

현재적 개입을, 파동함수 붕괴는 특정 해석으로의 고정화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특히 제주 4·3과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념들은 재현불가능성의 딜레마를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본 논문은 양자역학의 주요 개념인 '양자 중첩'과 파동함수 붕괴를 한강의『작별하지 않는다』에 나타난 기억과 트라우마의 서사 구조 분석에 적용하여, 역사적 사건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양자 중첩'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재현 불가능성 자체를 모호한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전략적이고 논리적인 문학적 장치로 재구성하려 한다. 소설이 지닌 이러한 접근법은 역사적 사건이 과거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찰과 해석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작별하지 않는다』의 핵심 배경인 제주 4·3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제주 4·3은 단순한 비극적 사건이 아니라, 그 성격을 둘러싸고 지속적인 논쟁이 이루어져 온 역사적 사건이다. 2003년 4월 3일『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정부는 제주 4·3을 공산 폭동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4·3을 항쟁으로 볼 것인가, 학살로 볼 것인가, 혹은 냉전의 희생으로 해석할 것인가는 논자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17] 사건의 정명(正名) 문제는 단순한 사건의 명명이 아니라 어떠한 기억을 사회적으로 승인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18] 따라서 제주 4·3을 단순히 한국 현대사의 트라우마로 서술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이 사건이 어떤 맥락 속에서 구성되었고, 그것이 현재적 기억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문학은 이러한 역사적 논쟁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도 동시에 사건을 기억하

17 김영범,「'4·3'의 의미 반추와 정명의 문제」,『4.3과 역사』제19권, 제주 4.3연구소, 2019, 12-15쪽.

18 제주 4·3과 관련된 기억투쟁에 대해서는 권귀숙의『기억의 정치-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문학과지성사, 2007, 197-199쪽)과 양정심,『제주 4·3 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도서출판 선인, 2018, 228-233쪽)을 참고함.

는 또 다른 방식의 실천을 제안할 수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4·3에 대해 역사적 기록이 아닌 현재적 기억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통해 접근한다. 즉 역사적 사건을 직접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증언할 것인가를 탐색하면서, 기억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 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비극적 정서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별하지 않는다』가 4·3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기억의 불완전성과 그 방식 자체에 대한 긴장을 드러낸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의 방식과 서사적 구조는 양자역학적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전승민은 양자 얽힘(entanglement)의 개념을 활용하여,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타난 시선과 역사적 사건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19] 본 논문은 이를 확장하여, 양자역학의 '비결정성(indeterminacy)'이 역사의 서사적 재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양자역학에서 중첩은 한 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20] 이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역사적 기억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중첩된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점과 연결된다. 서술자는 제주 4·3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사건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구성되는 방식으로 존재함을 경험한다. 이는 역사적 기억이 단순히 보존되거나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위치 변화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의

19 전승민, 「통증과 회복의 인간학-양자역학으로 읽는 한강」, 『문학동네』 제112권, 문학동네, 2022, 141-159쪽. 전승민의 논의는 감정과 감각의 양자적 '얽힘', 트라우마와 통증의 양자적 존재 방식에 초점을 두었다. 본 논문은 양자 '중첩'과 '관찰자' 및 재현불가능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과거 사건이 기억과 관찰 행위를 통해 어떻게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면서 해석의 가능성을 제안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20 양자 역학의 중첩 원리에 따르면 "시스템이 확실히 하나의 상태에 있을 때마다 두 개 이상의 다른 상태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고유한 관계가 있다." "원래 상태는 두 개 이상의 새로운 상태의 일종의 중첩의 결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고전적 사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방식이다. 모든 상태는 두 개 이상의 다른 상태의 중첩의 결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무한한 수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반대로 두 개 이상의 상태를 중첩하여 새로운 상태를 제공할 수도 있다." Paul A.M. Dirac, *The Principles of Quantum Mechan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12.

미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는 과제는 양자역학적 관점의 전유를 통해 그 답을 얻는다. 여기에서 양자역학은 문학의 도구이다. 양자의 원리가 문학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를 살피기 위해 먼저 관찰의 문제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찰자의 위치 변화가 어떻게 주체 정체화 방식의 변화와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이후 작품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생각하다'라는 서술어의 변주와 '눈'의 서사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일련의 논의를 거쳐 제목인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제주 4·3에 대한 태도와 연결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이는 곧 제주 4·3에 대한 인간적 문학적 이해의 문제와 역사적 사건이 재현을 넘어 현재의 문제로 다시 구성되는 방식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다.

2 세계의 일부로서 관찰자와 관계주체

『소년이 온다』(2014)와 『작별하지 않는다』(2021), 두 작품의 서술자에게는 모두 작가-서술자의 면모가 있다. 『소년이 온다』에서는 「에필로그」,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1-결정」에서 이런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를 통해 광주 5·18과 제주 4·3은 '지금-여기 나'의 사건이 된다. 서술자-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는 에필로그 즉 서사의 말단에 잠깐 드러날 뿐이지만,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처음부터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 된다.

역사적 사건과 글 쓰는 자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은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2015)에서부터 발견된다. 여기에서 글을 쓰는 서술자와 쓰기 대상의 위치는 이야기의 안과 밖으로 분리되어 있다. 서술자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이야기를 희곡으로 써 달라는 의뢰를 받고, 고통의 바깥에 있는 자가 과연 말할 수 있는가, 즉 쓸 수 있는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한다. 그는 "고통의 바깥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희곡을 완결짓지 못한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은 글을 쓸 수 없음에 대해 쓴 글이다. 여기에는 고통스러운 삶의 대상화 혹은 그와의 단절감에서 비롯된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글쓰기의 한계 속에서 『작별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한

다. 어떻게 사건의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하는가? 이 소설은 이에 대한 답변이다. 여기에 이르면 더 이상 바깥이 존재하지 않는다. 안과 밖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짐으로써 글 쓰는 자의 매개성 또한 사라진다. 아래 장면에서 경계의 파괴를 확인할 수 있다.

> 그러고 보면 그녀가 만든 영화들도 대부분 할머니로 불리는 연배의 여성들을 다룬 것이었다. 그들의 인터뷰가 특별히 내밀했던 데에는 인선의 친화력이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나는 짐작해왔다. 그들이 말을 잇다 말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침묵할 때, 인선의 솔직하고 신선한 얼굴이 힘을 다해 그들을 마주보고 있었을 거라고.
>
> 베트남의 밀림 속 외딴 마을에 홀로 살던 노인에게 현재 안내인이 인선의 질문을 통역하던 장면에서도 나는 그렇게 화면에 없는 인선의 얼굴을 생각하고 있었다.
>
> 그날 밤에 대해 당신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이 사람이 묻습니다.
>
> 다소 딱딱하게 번역된 그 한국어 자막 위로, 희끗하게 센 짧은 머리를 귀 뒤로 넘긴 할머니가 카메라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작고 마른 얼굴에 눈매가 유난히 영민한 사람이었다.
>
> 그걸 당신에게 물으려고 이 사람이 한국에서 왔습니다.
>
> 마침내 노인이 입술을 떼었다. 통역자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며, 놀라운 집중력으로 오직 카메라만을 응시한 채 대답했다.
>
> 좋아. 내가 이야기해줄게.
>
> 카메라 렌즈를 꿰뚫고, 그 뒤에 서 있었을 인선의 눈까지 관통해 날아온 그 눈의 빛이 내 눈을 찔렀다. 오랜 시간 그 만남을 기다려온 사람의 대답이라고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그 짧은 승낙의 말에 그의 인생 전부가 들어 있다고.
>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2021, 97-98쪽.(밑줄: 인용자, 이하 본 본문에서 인용의 경우 페이지수만 적기로 한다.)

위 예문은 인선의 다큐멘터리에 대한 경하의 소감이다. 화면에는 이야기하는 베트남 노인과 통역사가, 화면 밖에는 이를 바라보는 경하가 있다. 여기에 또 한 사람, 인선이 있다. 그는 화면에 없지만 카메라 렌즈 뒤에 서서 노인과 마주한다. 경하는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화면 속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을 찍는, 보이지 않는 인선도 함께 떠올린다. 경하는 관객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시선 구도가 있다. 1차 구도는 영상 속 '베트남 노인-통역사-관객 경하'가 만들어 내는 구도이다. 2차 구도는 '화면 속 존재-화면 밖 인선-다큐멘터리를 보는 경하'의 구도이다. 경하의 위치는 이중화된 화면 밖이다. 경하를 통해 또 하나의 화면 밖 공간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시선은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의 피해자인 베트남 노인 / 이를 듣는 화면 밖 인선 / 인선을 상상 혹은 의식하면서 화면을 바라보는 경하'의 방식으로 겹쳐진다. 여러 겹의 화면 밖은 물리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면서 보는 이의 현존을 구성한다.[21] 이를 통해 경하는 화면 안과 밖의 구분을 깨는 동시에 연결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경하가 만들어 내는 이중의 외화면 시점을 통해 이야기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는 사라진다.

인선 혹은 경하의 시선과 대상의 관계는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관계에 대한 양자적 특성을 통해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양자론에서 관측자는 관측 대상의 일부이다. 반대로 관측 대상 또한 관측자의 일부이다. 이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속성이 결정된다.[22]

여기에서 주체는 관계주체의 양상을 띤다. 안과 밖의 교란을 통해 화면 밖 존재인 경하와 인선은 대화를 나누는 혹은 바라보는 대상의 속성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을 정체화한다. 이처럼 관찰자로서 경하와 인선은 그들 자체가 관찰하는 세계의 일부로서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의 일부가 되는 동시에 그들 자신도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다. 관찰하는 주체 자체가 관찰하는 현실의 일부인 것이다. 양자역학에서 관찰 행위는 그 자체가 세계의 일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관찰 행위가 관찰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의 일부"가 되며[23] 이는

21 질 들뢰즈, 유진상 옮김, 『시네마I 운동-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2, 30-40쪽.

22 카를로 로벨리, 김정훈 옮김,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쌤앤파커스, 2020, 96-103쪽.

23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옮김, 『라캉 카페』, 새물결, 2013, 1607쪽.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현실 자체에 포함되어 있음을 파악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24]

이 겹침 구조는『작별하지 않는다』속 세부 서사의 기본형을 이룬다. 인선 엄마의 제주 4·3 당시 눈송이 기억이 인선과 경하에게 겹쳐지는 방식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경하는 인선을 통해 제주 4·3의 이야기, 구체적으로는 인선의 엄마와 외삼촌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다. 먼저 인선의 이야기가 있고, 인선의 이야기 속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으며, 그 속에 제주 4·3이 있다. 어린 정심에게 4·3은 차갑게 얼어 얼음이 된 눈송이의 기억이자 감각으로 남는다. 정심의 이야기가 어떻게 인선과 경하에게 겹쳐지는지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내가, 눈만 오민 내가. 그 생각이 남져. 생각은 안 하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남서. (86쪽)

② 이렇게 눈이 내리면 생각나.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87쪽)

③ *이렇게 눈이 내리면 생각나. 그 학교 운동장을 저녁까지 헤매다녔다는 여자애가.*
흰 털실로 뜬 모자를 쓴 것처럼 그녀의 머리에 눈이 쌓여 있었다. 파카 호주머니에 찔러넣은 내 두 손은 딱딱하게 얼어 있었다. 우리가 눈 위로 발자국을 남길 때마다 소금 부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눈만 오민 내가, 그 생각이 남져. 생각을 안 하젠 해도 자꾸만 생각이 남서. (95쪽)

①은 인선이 엄마 정심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경하에게 간접화의 방식으로 들려주는 내용이다. 눈이 내리면 정심에겐 그날의 기억과 감각이 되살아난다. ②에서는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인선 또한 "눈이 내리면"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닌데도 "그 학교 운동장을 저녁까지 헤매다녔다는 여자애"인 엄마가 떠오

24 위의 책, 1633쪽.

른다. ③에서 경하는 제주에 내려와 눈을 보면서 인선의 말과 그 엄마인 정심의 말을 함께 떠올린다. ②에서 말하는 이는 인선이지만 동시에 인선/정심이며 ③에서 화자는 경하이지만 동시에 경하/인선 그리고 경하/정심이다. 이처럼 눈송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겹쳐지는 방식을 통해 각각의 인물은 대상의 속성을 스스로에게 반영하면서 자신을 정체화한다.

이러한 겹쳐짐을 통해 이들은 관계주체가 된다. 관계주체는 세 가지 핵심적 특성을 가진다. 첫째, 대상과 분리되면서도 동시에 연결되는 이중적 존재이다. 둘째, 단순한 매개자나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능동적 질문과 사유를 통해 대상과 상호작용한다. 셋째, 대상에게 영향을 주는 동시에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공동의 의미 구성에 참여한다. 이런 관계주체는 대상으로 전환하는 혹은 대상이 되는(becoming) 주체와는 다르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다양한 이야기 속 이야기를 통해 서사가 진행된다. 이를 일반적인 액자 형식으로 볼 수 없다. 액자 소설에서 서술자는 단순한 중간자 혹은 전달자이다. 경하/인선 그리고 경하/정심은 전달자도 아니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혹은 대상이 되는 자의 면모를 띠지도 않는다. 경하가 인선이 되는 것도 경하가 정심이 되는 것도 아니다. 분리와 통합의 이중성을 보여준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나타나는 분리와 통합의 이중성은 아감벤이 말하는 증언의 이중구조와도 연관된다. 아감벤은 증언 주체의 본질적 분열성을 말함의 가능성/불가능성, 인간/비인간의 이중구조로 설명한다. 이는 '이슬람교도'와 증인의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나타나는데, 경하와 인선 혹은 정심과의 관계 또한 유사하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단순히 하나의 정체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분리와 통합의 긴장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증언이나 관계가 가능함을 보여준다.[25]

경하가 인선의 부탁을 받고 그의 제주 집으로 가는 여정은 경하가 인선이 되는 과정 곧 인선 되기가 아니다. 경하는 "왜 하필 나에게였을까?"(49쪽)라는 의문을 품고 인선의 집으로 향한다. 제주 공항에 내려 그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면서도 "내가 인선이라면"이라는 생각을 반복하지만 "나는 인선이 아니"(88쪽)라

25 조르주 아감벤,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1.222-223쪽 참고.

는 결론에 가닿는다. 인선의 집에서 인선을 만나 정심의 스크랩 뭉치를 보면서도 그 대상들에 휘둘려 동일시되지 않으려고 한다. 그는 “설득되지 않았다”, “의문했을 뿐이다””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고수하고자 한다.

이렇게 볼 때 관계주체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전하는 전달자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대상에 공감하고 동일시하면서 스스로를 지워 대상이 되는 자도 아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는 자이다. 그가 취하는 태도는 의심과 질문이다. 인선으로부터 외삼촌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도 경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다. 단순히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총살 직전 정신을 잃고 갱도로 떨어져 총알을 피했을까. 군인들이 떠난 뒤 시체들 속에서 눈을 떴을까. 달빛이 새어들어오는 제1수평갱도 입구를 향해 기어갔을까.”(292쪽) 이렇듯 경하는 연속된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질문하는 태도는 대상관의 관계에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대상의 경험을 깊이 탐색하려는 시도로서, 관계주체로 하여금 동일시와 거리두기를 넘어서는 복합적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관계주체의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은 새와 인선 아버지를 통해 보여주는 이중 시선이다. 인선이 키우던 새 아미는 한 번에 두 개의 시선을 갖는다. “한쪽 눈으로는 인선과 눈을 맞추고, 다른 쪽 눈으로는 벽에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보”거나,(112쪽) “한쪽 눈은 벽에서 움직이는 인선과 아마의 그림자를, 다른 쪽 눈은 유리창 밖 마당에서 저녁 빛을 받으며 흔들리는 나무를 보”(113-114쪽)는 식이다. “두 개의 시야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새의 시선 처리 방식은 인선 아버지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지인은 그를 “한 눈으로는 나를 보고 다른 한 눈으론 내 몸 너머 다른 빛을 보는 것 같이” “두 세계를 사는 사람”로 기억했다.(165쪽) 이러한 이중 시선은 관계주체가 한 세계에만 고정되지 않고 복수의 현실을 동시에 인식하는 양상을 비유한다. 이는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관찰자와 대상이 상호 구성하는 복합적 현실을 포착하는 서사적 장치이다. 이러한 이중 시선은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현실들을 동시에 인식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이는 경하에게도 적용된다. 즉 그가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현재의 자신을 복합적으로 바라보고 과거와 현재를 서로 연결지으면서, 관계주체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서사적 장치로도 작동한다.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나타나는 관계주체는 양자역학의 세계관을 통해 역사적 사건과 서술자 사이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보여준다. 그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건 동일시하지 않고, 질문하고 사유하며 이중의 시선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바라본다. 이를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 불가능성을 넘어서는 대안적 서사 방식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 과거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찰과 해석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학적 실천이다.

3 양자중첩으로서 '생각하다'와 사건의 현재성

한강의 역사적 트라우마 재현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재현 불가능성의 윤리적 측면[26]이나 증언의 한계[27]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여기에서는 『작별하지 않는다』에 나타난 양자역학적 사유를 통해 재현 불가능성을 존재론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역사적 사건의 중첩 상태가 갖는 의미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소설 속 설화의 재해석과 '생각하다'라는 서술어의 반복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설화는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치이다.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에 노힐부득과 달달박박 설화가 있다면, 『작별하지 않는다』에는 바위가 된 여자 설화가 있다. 각각의 작품에서 두 설화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된다.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에서는 길 잃은 여자에 대한 노힐부득의 자비가 구원의 행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면서 서술자는 희곡의 마무리를 포기한다. 반면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돌이 된 여자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한다. 이 이야기는 금기를 어긴 자의 이야기이다.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는 '말하지 말 것' 혹은 '쓰지 말 것'이라는 금기와 통한다. 한국 현대사에서 오랜 시간 금기의 대상이었던 제주 4·3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금기가 풀린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삶이 구원될 수 있을까?

26 황정아, 앞의 글, 21-27쪽.
27 나보령, 앞의 글, 55-61쪽.

노힐부득의 딜레마는 여기에도 적용된다. 이 딜레마는 글 쓰는 자의 매개성이 갖는 단절성에서 비롯되었다. 즉 고통의 바깥에서 그 안의 이야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 단절을 극복할 수 있을까?『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전설의 바위' 이야기를 재해석하여 그 가능성을 찾는다.

전설의 바위 주인공은 동네에서 유일하게 걸인에게 밥을 준 여자이다. 노힐부득 또한 길 잃은 여자에게 쉴 곳을 내어준 수도승이다. 후자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모두를 구원하지만, 전자는 자신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길을 마다하고 뒤를 돌아봄으로써 돌이 된다. 여기에는 '돌아보다'와 '돌이 되다'라는 행위와 작용이 있다. 돌이 된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금기와 위반 그리고 폐쇄적 처벌의 서사가 된다. 이와 달리 돌아보는 행위성에 주목하면 타자를 향한 열림의 서사가 된다. 인선은 후자의 방식으로 설화를 해석한다. 그는 "그때 안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라면서 돌로 남은 것은 허물이고, 새로운 삶이 동시에 펼쳐졌을 것이라는 상상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여자는 돌인 동시에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뛰어든 존재라는 이중 상태성을 갖게 된다.

인선과 경하가 친구가 된 계기는 이 해석에 대한 공감에 있다. 돌인 동시에 돌이 아닌, 모순에 대한 공감이 이들을 묶어주었다. 이러한 사유—이중 상태 혹은 존재의 가능성—는 인선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인선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 이제는 그게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지 않아, 인선이 말했다.
>
> 아버지가 십오 년 동안 형무소에도 있고 저 건너에도 있었던 것이.
>
> 책상 밑에서 내가 무릎을 구부리는 동시에 활주로 아래 구덩이 속에도 있었던 게.
>
> 네가 꾼 꿈을 생각하고 생각하면 캄캄한 어항 속 지느러미처럼 어른거리던 그림자가.(322쪽)[28]

28 『작별하지 않는다』에는 문장이 행을 한 칸씩 건너뛰어 배열된 부분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어머니에 따르면 아버지는 십오 년 동안 섬을 떠나 있는 동시에 저 건너편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인선과 어머니는 그의 이중 상태를 받아들인다. 인선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도 "책상 밑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시에 "활주로 아래 구덩이 속에도 있"었노라고 말한다. 돌이 된 여자도, 인선도, 그의 아버지도, 모두 이중의 존재 상태에 있다. 아래 예문도 이와 통한다.

> "정말 누가 여기 함께 있나, 나는 생각했다. ①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는, 관측하려 하는 찰나 한곳에 고정되는 빛처럼."
>
> 그게 너일까, 다음 순간 생각했다. ②네가 지금 진동하는 실 끝에 이어져 있나. 어두운 어항 속을 들여다보듯, 되살아나려 하는 너의 병상에서. (322-323쪽)

앞에서 살핀 인물들의 이중 상태는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한다'는 위 문장의 내용과 맞아떨어진다. 이는 양자 상태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가능한 상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중첩이다. 중첩의 사유에 따르면 존재는 단일한 상태에 고정되지 않고 두 가지 상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현실은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모든 관측 행위는 관측 대상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관측자는 관측 대상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29]

위 인용문에서 "관측하려 하는 찰나 한곳에 고정되"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파동함수 붕괴에 해당한다. 관측 이전에 여러 가능한 상태로 중첩되어 있던 양자의 파동함수가 관측 행위를 통해 하나의 상태로 결정되는 현상이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이를 관측자의 개입이 실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소설에서 '생각하다'라는 행위는 이러한 파동함수 붕괴의 문학적 변용으로, 의식적 개입을 통해 잠재적 현실이 특정한 형태로 실현되는 양상

상태를 살려 인용하였다. 이탤릭체 부분도 마찬가지다.

29 존 그리빈, 앞의 책, 1984, 224쪽.

이다. ‘생각하다’의 행위는 중첩 상태를 특정 상태로 결정짓는 행위로서 양자역학의 관측 행위에 해당한다. “진동하는 실 끝에 이어져 있나. 어두운 어항 속을 들여다보듯, 되살아나려 하는 너의 병상에서”는 구절에서도 이러한 양자역학적 비유를 읽을 수 있다. 실이 진동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 끝점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긴 어렵다. 그러한 너가 있는 곳은 ‘어두운 어항 속’과 같이 관측 불가능한 상태이다. 내부를 정확히 볼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이 또한 관측 이전의 양자 상태에 비유될 수 있다. “되살아나려 하는 너의 병상” 또한 어두운 어항처럼 삶과 죽음이 중첩된 곳이다.

‘생각하다’라는 서술어는 소설의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양자역학적 사유가 소설의 사유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이는 한강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재현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양자역학의 중첩 개념은 재현 불가능성 자체를 재현하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소설에서는 “나는 생각했다”, “생각한다” 등 ‘생각하다’를 기본형으로 하는 서술어가 매우 빈번하게 구사된다.[30] ‘생각하다’라는 서술어는 ‘생각’이라는 행위 그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부재하는 것을 현존하게 만드는 존재론적 행위로서,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당신이 생각의 내용(생각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생각

30 『작별하지 않는다』에는 ‘생각하다’를 기본형으로 한 변주 형태의 표현이 225회 사용되었다. 서술자인 경하를 주어로 한 문장에서 이와 관련된 서술어는 140회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나는) ~ 생각했다”라는 표현은 67회, “(나는) 생각한다”라는 표현은 55회이다. 다음은 몇 사례이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 눈보라를 헤치고 걸어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운 바람 속에서, 거의 감은 눈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거다. / 인선에게는 이런 눈이 익숙하겠지,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인선이라면, 하고 이어서 생각한다. / 그녀의 침착한 성격을, 어떤 일도 쉽게 체념하지 않는 끈질긴 기질을 생각한다. 그녀라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할 거라고 짐작되는 일을 상상한다.”(한강, 앞의 책, 87-88쪽.)
‘생각하다’라는 행위의 내적 의미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생각하다’의 주어 곧 행위 주체로서의 경하, 인선, 정심 등의 중첩뿐만 아니라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의 진행 방향이 바뀐다. 거꾸로, 당신이 생각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의 내용이 불명확해진다. 이와 유사하게, 불확정성원리에 따르면 당신이 대상의 위치를 관찰하면, 대상의 운동이 교란된다. 거꾸로 당신이 대상의 운동을 관찰하면, 대상의 위치가 불명확해진다.[31]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생각하다'라는 서술어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문학적으로 공명한다. 중첩이 한 존재가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 불확정성 원리는 그 존재의 특성(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불확정성 원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무한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원리로, 관측자의 개입이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다. 소설에서 반복되는 '생각하다'라는 행위는 이러한 양자역학적 원리들과 공명한다. 생각은 중첩 상태처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며, 그 내용과 방향은 언제나 불확정적인 채로 머무른다. 소설에서 '생각하다'라는 행위는 이 두 원리를 결합한다. 즉, '생각'을 통해 대상은 중첩 상태에 놓이게 되며, 동시에 그 생각의 내용(위치)과 진행 방향(운동량)은 양자역학에서처럼 동시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다. 이러한 원리들의 복합적 적용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역사적 사건의 재현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생각하다'라는 행위가 존재론의 의미 차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즉 이 행위는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관찰 이전의 중첩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소설은 존재와 부재의 동시성, 현실과 비현실의 공존 상태를 구현한다. 생각의 내용과 방향의 불확정성이 만들어내는 존재의 이중성은 존재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양자역학적 접근은 다음 인용문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네 생각을 많이 했어.
인선의 목소리에 나는 눈을 들었다. 그녀도 그 바람구멍 속을 보고 있었다.

31 브루스 로젠블룸·프레드 커트너, 전대호 옮김, 『양자 불가사의: 물리학과 의식의 만남』, 지양사, 2021, 399쪽.

하도 생각해서 어떤 날엔 꼭 같이 있는 것 같았어.(190쪽)

이상해, 경하야.
네 생각을 날마다 했는데 정말 네가 왔어.
하도 생각해서 거의 네가 보일 것 같은 때도 있었는데.
캄캄한 어항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유리에 얼굴을 붙이고 끈질기게 들여다보면 원가 안쪽에서 어른거리는 것같이. (320쪽)

위 예문은 '생각'이 어떻게 중첩되거나 동시적인 존재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다. 인선이 경하를 '생각하는' 행위는 물리적 부재 속에서도 존재의 현존성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한 기억이나 상상이 아니라, 부재하는 존재가 관계 속에서 현존성을 획득하는 양자역학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양자역학에서 측정 전 중첩 상태처럼,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행위는 그 대상의 잠재적 현존을 가능하게 한다. 경하를 생각함으로써 경하의 존재는 물리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생생해진다. 양자가 측정 시 잠재 상태에서 특정 상태로 이동하는 것과 유사하게, 인선의 강렬한 생각은 경하의 부재와 현존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의 '생각하다'라는 서술어는 단순한 인지 활동 이상의, 여러 층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다. 여기에서 '생각하다'는 그 강도가 강해지면 중첩 상태는 붕괴되고 존재가 실체화된다. 입자가 관찰될 때까지 여러 상태로 존재하는 양자 중첩 상태는 '생각하다'의 상태인 것이다. 이는 과거와 현재, 존재와 부재 사이의 간격을 지운다. 동시에 단절과 간격의 현실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인식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작별하지 않는다』는 양자론의 원리를 문학적으로 전유하여 기억, 존재, 부재의 복잡성에 접근한다. 이러한 전유는 과학적 엄밀성보다는 문학적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양자중첩의 관점이 제주 4·3 사건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기억, 후회, 공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 제주 4·3사건에 대해 다양한 인물들을 통한 모자이크적 서술 방식을 취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에 대해 노태훈은 “아카이빙 픽션”,[32] 나보령은 “증언들의 콜라주”[33]라고 명명하였다.

이 소설이 보여주는 제주 4·3의 서사는 복수적이다. 개인에 따라 다르게 기억되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그 해석을 둘러싸고 민중항쟁, 집단학살, 냉전의 희생 등 다양한 역사적 담론이 경합해 온 사건이다. 2003년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금기시되었던 이 사건은, 공식 역사와 생존자들의 개인적 기억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하나의 통합된 설명이 아닌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서사의 중첩을 만들어 낸다. 이는 단순한 다성성(polyphony)을 넘어, 관측 방식에 따라 다른 상태로 나타나는 양자역학적 현상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소설은 이러한 복수성을 통해 다양한 자들의 경험과 기억이 어떻게 일원화된 의미를 거부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제주 4·3은 발화자의 현재 속에 여전히 작동하는 현재적 사건이 된다. 다음의 예문은 이러한 시간 인식을 잘 보여준다.

> 파문처럼 환하게 몸 전체로 번지는 온기 속에서 꿈꾸듯 다시 생각한다. 물뿐 아니라 바람과 해류도 순환하지 않나. 이 섬뿐 아니라 오래전 먼 곳에서 내렸던 눈송이들도 저 구름 속에서 다시 응결할 수 있지 않나. 다섯 살의 내가 K시에서 첫눈을 향해 손을 내밀고 서른 살의 내가 서울의 천변을 자전거로 달리며 소낙비에 젖었을 때, 칠십 년 전 이 섬의 학교 운동장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의 얼굴이 눈에 덮여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암탉과 병아리들이 날개를 퍼덕이는 닭장에 흙탕물이 무섭게 차오르고 반들거리는 황동 펌프에 빗줄기가 튕겨져 나왔을 때, 그 물방울들과 부스러지는 결정들과 피 어린 살얼음들이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법이, 지금 내 몸에 떨어지는 눈이 그것들이 아니란

32 노태훈, 「연결되는 ‘우리’와 회복하는 ‘나’-최근 한국소설이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문학동네』 제110권, 문학동네, 2022, 234쪽.

33 나보령, 앞의 글, 56쪽.

법이 없다. (135-136쪽)

위 예문은 선형적 시간관을 넘어선다. 시간의 중첩과 동시성이 두드러진다. 다섯 살 때의 첫눈, 서른 살 때의 소낙비, 칠십 년 전 섬에서의 사건, 그리고 현재 내리는 눈이 하나의 시공간 속에 공존한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현재의 경험 속에 중첩되어 남은 것이 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제주 4·3은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경험으로 재구성된다.

시간의 중첩은 '생각한다'는 행위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위 예문에서 생각 행위는 단순한 회상이나 기억의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마치 양자역학에서 관찰자의 개입이 양자 상태를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현재의 행위가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실존적 경험으로 통합하는 계기가 됨을 보여준다.[34] 이렇듯 과거의 사건은 더 이상 닫힌 역사로 존재하지 않으며, '생각하다'라는 서술 행위를 통해 끊임없이 현재화되고 재해석된다. 이는 기억의 재생이나 역사적 사실의 기록을 넘어,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역학적 시간 속에서 제주 4·3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경험하게 한다. '생각하다'는 행위는 양자중첩의 은유로 작동하면서, 역사적 사건의 현재성과 지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가 된다.

여기서 '사건의 현재성'은 시간적 차원을 넘어 존재론적, 윤리적,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존재론적 차원에서, 과거 사건은 현재의 '생각'이라는 관측 행위를 통해 중첩 상태에서 특정 방식으로 현실화된다. 이는 역사가 고정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관점과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윤리적 차원에서, 제주 4·3을 현재적 사건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역사적 고통에 대한 윤리적 응답가능성(responsibility)의 문제로, 타자의 고통에 대한 지속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현재화를 통해 왜곡되거나 억압된 기억을 복원하고 집단적 기억의 정치학을 재구성하는 실

34 나아가 '눈'을 통해 확인되는 시간의 중첩 속에서 개인적 경험과 집단의 역사는 교차하게 된다. 마치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얽힘(entanglement) 현상처럼, 개인의 기억과 역사적 사건,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경험이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천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양자중첩으로 표현되는 '사건의 현재성'은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과 치유라는 문학의 과제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역사적 트라우마가 현재화된다는 인식은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금-여기에서 묻는 윤리적 행위이며, 공동체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정치적 실천이 된다. 또한 소설이 채택한 양자중첩의 서사 전략은 역사적 사건의 재현 불가능성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다. '생각하다'라는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존재론적 중첩은 단일한 해석을 거부하는 역사적 사건의 본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소설은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 불가능성이라는 아포리아를 극복하고, 다층적 기억과 여러 관점이 공존하는 새로운 재현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4 '눈[雪]'의 의미와 역사의 트라우마 재현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서사를 지배하는 것은 3장에서 살펴본 '생각하다'의 서술어 변주형과 더불어 '눈'이라는 소재이다. "성근 눈이 내리고 있었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되는 1부 1장의 제목은 '결정(結晶)'이다. 또 눈의 기억은 삶의 논리로 확대되어 서사를 지배한다.[35] 여기에서는 '눈'이 지닌 다층적 의미를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앞서 논의한 '생각하다'의 양자적 행위와 연결하여 눈의 의미 및 역사적 트라우마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눈은 또 다른 현실로 넘어가는 전환의 매개이다. 서사 현실에서는 지속적으로 눈이 내린다. 경하가 인선의 부름을 받고 병원에 도착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눈이 내리기 시작한다. 인선의 부탁으로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도, 인선의 집에 도착해서도 눈은 계속해서 내린다. 이때의 눈은 경하를 경험적 현실 차원으로부터 떼어놓는 역할을 한다. 눈을 통해 경하는 지금까지의 고통으로부터 또 유서의 문제로부터 벗어난다. 병원에서 창밖의 눈을 보면서 경하는 "고통, 유서를 완성하겠다는 모순된 의지로 지난 몇 달을 버텨왔다는 것. 자신의 삶이라는 지옥에서 잠시 빠져나와 친구를 병문안하고 있는 이 순간이 기이하게 낯설고 선명하게 느"

35 한강, 앞의 책, 86쪽.

껴진다(44-45쪽). 눈의 비현실성은 경하에게 자신만의 일상 현실에서 타인이 열어놓은 또 다른 현실로 건너가는 중간지대를 만들어낸다. 눈은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하는 장치이다.

둘째, 눈은 여러 층위의 의미가 중첩된 복합 상태이다. 눈은 기온에 따라 눈이나 비가 될 수 있으며, 녹을 수도 녹지 않을 수도 있다. 각각의 상태는 삶과 죽음을 의미한다. 녹지 않은 눈은 죽음의 한기, 녹는 눈은 생명의 온기를 드러낸다. 이는 인선 어머니의 제주 4·3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다.[36] 정심은 "죽으면 사람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 뺨에 눈이 쌓이고 피 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걸" 학살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깨달았다(84쪽). 그에게 눈은 억압된 과거의 기억을 현재로 소환한다. 학살 현장이었던 운동장의 기억과 현재 딸의 사고가 눈이라는 매개를 통해 연결되며, 어머니의 트라우마는 딸의 현재 사고를 예감하는 꿈으로 재현된다. 이처럼 녹는 혹은 녹지 않는 눈의 상태는 삶과 죽음의 중첩 상태이다.

셋째, 눈은 순환과 연결의 매개체로서 시공간을 현재화한다. 눈의 순환성을 통해 개인의 기억과 역사적 경험이 서로 연결된다.[37] 엄마 정심이 학교 운동장에 쌓인 시체에서 본 눈과 인선의 얼굴에 쌓인 눈, 경하가 제주에서 보는 눈이 모두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은, 개인의 경험과 역사 사건이 물질의 순환을 통해 연결됨을 보여준다. 또 눈의 순환성은 삶과 죽음, 폭력과 평화와 같은 대립적 경험들을 하나의 연속성 속에 위치시킨다. 다섯 살 무렵 경하의 손에 닿았던 첫눈의 느낌부터 정심이 제주 4·3의 학살 현장에서 보았던 눈의 느낌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경험들이 하나의 순환 속에서 연결된다. 순환하는 눈은 자연 현상을 넘어 존재론적 의미를 획득한다. 이는 개별 경험들을 하나의 연속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역사적 폭력의 기억과 현재의 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준다.

넷째, 눈은 역사적 트라우마가 개인의 삶에 침전되고 결정되는 방식을 보여

36 눈의 첫 경험은 인선의 엄마 정심에게서 비롯된다. 정심은 "죽으면 사람의 몸이 차가워진다는 걸. 맨뺨에 눈이 쌓이고 피 어린 살얼음이 낀다는 걸." 학살의 현장을 확인하면서 깨달았다. 알았다. (한강, 앞의 책, 84쪽) 이로부터 눈은 삶과 죽음의 징후이자 트라우마의 매개물로서 반복해서 제시된다.

37 한강, 앞의 책, 133쪽.

준다. 눈은 새와 '가벼움'의 속성을 공유한다. 둘의 공통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눈은 결정으로, 새는 "발생 초기 태아의 형상"이자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공룡"으로 인식된다. 눈송이에서 결정을 보고 새에게서 태아의 형상이자 태초의 공룡을 보는 것은 경험적 시각을 뛰어넘은 감각이다. 이러한 감각은 역사적 트라우마의 경험과 유사하다. 이는 작품 말미의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구절과 "모든 고통과 기쁨, 사무치는 슬픔과 사랑이 서로에게 섞이지 않은 채 고스란히, 동시에 거대한 성운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빛나고 있다"는 표현에서 드러난다. 즉 덩어리로서의 경험에는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다. 경험의 덩어리와 추상의 결정은 속성상 대립하지만, 구체적 경험은 추상적 결정과 연결되며, 결정은 경험적 감각을 뛰어넘어 구체적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역사적 트라우마는 개인의 구체적 삶에 침전된 결정이다.

눈의 네 가지 의미는 '생각하다'의 서술어에서 보여준 중첩 상태와 연결된다. 첫째, 전환의 매개로서 눈이 만드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는 '생각하다'라는 행위가 부재와 현존 사이의 중첩을 만드는 것과 유사한 양자역학적 상태를 구현한다. 경하가 눈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현실로 전환하는 경험은, '생각하다'를 통해 부재하는 것이 현존하게 되는 양자적 경험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둘째, 눈의 복합 상태성(녹음/녹지 않음)은 '생각하다'라는 행위가 만들어내는 양자역학적 중첩과 마찬가지로, 확정되지 않은 다중성의 상태를 구현한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눈의 이중 상태는 '생각'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중첩의 문학적 표현이다. 셋째, 순환과 연결의 매개체로서 눈은 '생각하다'는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시간의 중첩과 맞닿아 있다. '생각하다'가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경험 속에 공존시키듯, 눈의 순환성은 서로 다른 시공간의 경험들을 하나의 연속체로 통합한다. 넷째, 역사적 트라우마가 개인의 삶에 침전되는 방식으로서의 눈은 '생각하다'라는 행위를 통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상호 구성하는 양자역학적 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정으로서의 경험이 구체적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생각'을 통해 관찰자가 관찰 대상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양자역학적 원리의 문학적 구현이다. 이처럼 눈의 다층적 의미와 '생각하다'라는 서술 행위는 모두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라는 동일한 원리를 다른 층위에서 표현하고 있으며, 이 두 요소가 결합하여 역사적 트라우마의 재현 문제에 새

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다면『작별하지 않는다』는 왜 제주 4·3을 '슈뢰딩거의 고양이 상자'와 같은 중첩 상태로 유지하려는 것일까? 양자역학에서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실험은 관찰 이전에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와 죽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소설에서 제주 4·3이라는 사건을 단일한 해석이나 의미로 고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와 유사하다.

먼저 전환의 매개로서의 눈과 녹음/녹지 않음이라는 상태성은 제주 4·3을 단일한 해석이나 의미로 고정하지 않으려는 시도와 연결된다. 일상 현실에서 비현실 차원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눈의 특성은, 역사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해석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한 눈이 지닌 녹을 수도 녹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공존은 관찰 행위를 통해 하나의 상태로 고정되기 전의 양자역학적 중첩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이는 제주 4·3이라는 역사 사건이 단일한 의미나 해석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복잡성을 보존하려는 시도이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순환과 연결의 매개체로서 눈은 제주 4·3을 과거의 '완결된' 사건이 아닌, 현재까지 지속되는 살아있는 사건으로 바라보게 한다. "물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순환하지 않나"라는 구절이 암시하듯, 역사 사건은 과거에 고정된 채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이는 '생각하다'라는 행위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는 양상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역사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것으로 박제화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마지막으로 눈과 새가 보여주는 결정 혹은 생명의 원초성은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와 유사한 역설을 보여준다. 눈송이에서 결정의 본질, 새에게서 원초적 생명의 구조 등은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양자역학에서 관찰 행위가 대상의 상태를 필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 눈송이를 관찰하는 순간 이미 결정의 본질적 상태를 놓치게 되며, 다만 인식 속에서 그것의 물리적 실재를 넘어서는 의미를 마주할 뿐이다. 이러한 관찰 불가능성의 역설은 제주 4·3을 바라보는 방식과도 맞닿는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4·3은, 마치 관찰되기 이전 상태의

양자처럼, 단일한 관점이나 해석으로 환원될 수 없다. 사건을 관찰하고 해석하려는 순간, 그것이 지닌 본질적인 중첩 상태는 불가피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소설 속 인선이 자신의 경험을 영화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장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 두 개의 스웨터와 두 개의 코트로도 막을 수 없는 추위가 느껴진다. 바깥이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시작된 것 같은 한기다. 몸이 떨리고, 내 손과 함께 흔들린 불꽃의 음영에 방안의 모든 것이 술렁인 순간 나는 안다.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것인지 물었을 때 인선이 즉시 부인한 이유를.
>
> 피에 젖은 옷과 살이 함께 썩어가는 냄새, 수십 년 동안 삭은 뼈들의 인광이 지워질 거다. 악몽들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갈 거다. 한계를 초과하는 폭력이 제거될 거다. 사 년 전 내가 썼던 책에서 누락되었던, 대로에 선 비무장 시민들에게 군인들이 쏘았던 화염방지기처럼, 수포들이 끓어오른 얼굴과 몸에 흰 페인트가 끼얹어진 채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들처럼. (286-287쪽)

인선은 하나의 해석으로 고정되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건의 다층적 의미를 보존하고자 한다. “피에 젖은 옷과 살이 함께 썩어가는 냄새, 수십 년 동안 삭은 뼈들의 인광”과 같은 감각적 경험들을 영상의 선명한 그림으로 옮기는 순간 본질적인 즉 표현할 수 없는 의미는 ‘지워질’ 것이다. 이는 눈이 지닌 삶과 죽음의 중첩 상태, 즉 트라우마의 생생한 현존성이 영화적 재현을 통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또한 순환과 연결의 매개체로서 눈이 지닌 시간성은 제주 4·3의 시간성이기도 하다. “한계를 초과하는 폭력이 제거될 거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역사적 폭력의 기억이 영화적 재현을 통해 단순화되거나 정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이처럼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나타나는 ‘눈’의 다층적 의미는 제주 4·3을 하나의 확정된 의미나 해석으로 ‘관찰’하여 고정시키지 않으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는 3장에서 살펴본 ‘생각하다’라는 행위를 통해 구현되는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와 맞닿아 있다. 두 요소의 결합을 통해 역사적 사건의 본질적 의미가 단일한 해석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여러 가능성의 공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형상화한다. 결국 '눈'이라는 상징을 통해 구현되는 서사 전략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단일한 의미로 고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끊임없이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5 결론: 제주 4·3의 빈자리와 역사의 밤

> 나는 몸을 일으킨다.
>
> 내가 든 촛불을 통과한 인선의 엷은 그림자가 책장 옆의 흰 벽 위로 드리워져 있다. 벽으로 다가서자 그녀의 그림자가 사라진다. 초를 들지 않은 손으로 바랜 벽지를 쓸어나가 인선의 얼굴이 있던 자리에 얹어본다. 그 서늘한 벽의 단단함이 이 이상한 밤의 비밀을 알게 해줄 것처럼. 내가 등지고 있는 고요한 인선이 아니라 사라진 그림자에게만 물을 수 있는 말이 있는 것처럼. (287쪽)

제주 서사가 펼쳐지는 시간은 주로 밤이다. 경하가 제주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 무렵이다.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른 어둠이 깔린 이때부터 한밤까지가 2부와 3부의 서사 시간이다. 경하가 제주 4·3에 관해 듣는 이 밤은 '이상한' 밤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는 인선이지만 실제의 이야기는 '사라진 그림자'에게만 물을 수 있다. 물음과 답이 오가는 세천리의 밤은 사건 자체와 그것의 기록 사이를 지연하는 최소한의 시간이다.

제주 서사 속 세천리의 밤은, 앞서 논의한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볼 때, '존재론적 중첩(ontological superposition)'의 시공간이다. 이는 양자역학에서 관찰 이전의 중첩 상태와 같이, 역사 사건이 하나의 의미로 확정되기 전 다양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여기에서 역사 사건은 관찰 자체가 지연된 관찰 전의 상태로 머문다. 소설 속에서 "인선이 낮에는 공방에서 작업을 하고 밤이면 돌아와 구술 증언 자료들을 보았듯"(124쪽) 밤은 역사 사건을 재구성하고 새롭게 의미화하는 시간이다. 인선이 밤에 자료를 읽고 연구하는 장면들과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혼란스러운 밤의 시간에서, 제주 4·3이라는 사건은 하나의 의미로 고정되기보다는 열린 해석의 상태에 놓인다. 이때 '밤'은 사건이 하나의 확정된 의미로 등록되기 전의 불확실성의 시간, 즉 여러 가능성이 공존하는 시간이다. 제주 4·3을 '생각하는' 밤인 것이다. 이러한 밤의 시간을 통해 제주 4·3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로 확정되지 않고, 현재 속에서 새롭게 해석되고 의미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는다.

양자역학의 관점이 역사적 사건의 이해에 기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양자 관찰에서 관찰 행위가 관찰 대상의 상태를 필연적으로 변화시키듯,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과 증언 또한 그 사건의 의미를 변화시킨다. 이는 결코 역사적 진실 규명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 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항상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포괄해야 함을 강조한다. 제주 4·3의 경우,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과 같은 구체적 진실 규명 작업은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그 사건이 남긴 트라우마와 기억의 다층적 측면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전유한 양자의 원리는 단순한 문학적 실험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제주 4·3에 대한 윤리적·정치적 태도와 관련된다.

이러한 '밤'의 시간과 가장 어울리는 서술어는 3장에서 분석한 '생각하다'이다. 경하와 인선 나아가 인선의 어머니 정심을 포함한 이들 모두의 생각 행위 속에서 과거는 현재화되고 역사적 사건의 진실은 단일한 의미로 환원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닌다. 더불어 증언할 수 없는 자들의 부재하는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역사의 빈자리를 환기한다.

여기에서 빈자리는 먼저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다. 소설 속에서 인선이 수집한 자료들은 "제주도에서 모든 마을마다 있었다는 무덤에 관한 것", "그 중 어떤 무덤이 굴착되지 않은 채 지금도 섬 어딘가에 남아 있"(158쪽)음을 말한다. 아직도 희생자들의 유해는 발굴되지 않은 채 묻혀 있다. 이는 소설적 상상이 아닌 제주 4·3의 현실적 과제를 반영한다. 제주 4·3 평화재단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희생자들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해 발굴 작업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주 4·3이라는 역사 사건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빈자리는 극단적 폭력의 경험을

온전히 증언하거나 재현할 수 없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죽음을 당한 이들의 목소리, 그들이 겪은 고통, 살아남은 자들의 트라우마는 결코 완전히 '채울 수 없는' 빈자리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때 '빈자리'는 단순히 '비어있음'의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빈자리의 적극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진실 규명의 요청으로서, 소설에서 경하가 "인선의 얼굴이 있던 자리"를 쓸어보는 행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색을 상징한다. 둘째, 망자와의 윤리적 관계 형성으로서, "사라진 그림자에게만 물을 수 있는 말"(287쪽)은 희생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역사적 책임의 수용을 의미한다. 셋째, 집단적 기억과 애도의 실천으로서, 소설 속 인물들이 제주 4·3의 기억을 공유하고 전승하는 행위는 사회적 치유와 화해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빈자리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응답과 책임을 요청하는 공간이 된다.

이 소설이 제주 4·3을 슈뢰딩거의 고양이 상자와 같은 중첩 상태로 이해하려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빈자리'의 의미를 인정하고, 그것이 지닌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접근이 역사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역사적 사실의 확정과 다층적 해석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역사적 사실 규명은 다양한 해석의 토대를 제공하며, 다층적 해석은 더 깊은 역사적 진실을 향한 탐색을 촉진한다. 이는 마치 양자역학에서 특정 관찰이 한 상태를 확정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가능한 관찰과 상태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세천리의 밤이라는 시간은 제주 4·3을 '생각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그 사건이 지닌 다층적 진실을 마주하는 시간이다. 인선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지극한 생각을 통해 붕괴된 관찰의 결과라면, 여전히 관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중첩된 사건들 또한 그 자리에 공존한다. 이처럼 『작별하지 않는다』는 양자역학의 은유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재현 불가능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빈자리'를 통해 오히려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주 4·3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인 역사적·정치적 사건이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완전한 진실 규명과 사회적 화해는 진행 중인 과제로 남아있다. 이 소설은 양자역학적 인식을 통해 이러한 현실의 과제를 환기한다. 먼저 단일한 관점이나 내러티브로 환원되지 않는 역사적 경험의 복잡성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목소리와 기억이 공존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한다. 다음으로는 역사적 사건을 고정된 과거가 아닌 현재와 상호작용하는 살아있는 과정으로 이해함으로써, 지속적인 참여와 책임을 요청한다. 여기에서 제주 4·3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는 과거의 비극적 사실로서 확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마주하고 성찰해야 할 현재의 윤리적·정치적 과제로 다가온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2021.

단행본

권귀숙, 『기억의 정치-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문학과지성사, 2007, 197-199쪽.

양정심, 『제주 4·3 항쟁-저항과 아픔의 역사』, 도서출판 선인, 2018, 228-233쪽.

브루스 로젠블룸·프레드 커트너, 전대호 역, 『양자 불가사의: 물리학과 의식의 만남』, 지양사, 2012, 399쪽.

슬라보예 지젝, 조형준 역, 『라캉 카페』, 새물결, 2013, 1607쪽; 1633쪽.

조르주 아감벤, 정문영 역, 『아우슈비츠의 남은 자들』, 새물결, 2011, 222-223쪽.

존 그리빈, 박병철 역, 『슈뢰딩거의 고양이를 찾아서』, Humanist, 2020, 224쪽; 278-283쪽.

질 들뢰즈 지음, 유진상 역, 『시네마 I 운동-이미지』, 시각과 언어, 2002, 30-40쪽.

카를로 로벨리, 김정훈 역,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쌤앤파커스, 2020, 96-103쪽.

Dirac, Paul A.M., *The Principles of Quantum Mechan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p.12.

Edited by Ashlee Cunsolo and Karen Landman, *Mouring Natur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7, p13.

논문

김영범, 「'4·3'의 의미 반추와 정명의 문제」, 『4.3과 역사』 제19권, 제주 4.3연구소, 2019, 11-58쪽.

김영찬, 「불가능한 장소에서, 고통의 미메시스와 글쓰기의 드라마-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4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79-104쪽.

김예령, 「아니, 아니라는 사랑의 수행-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제29권, 문학동네, 2022, 75-98쪽.

나보령, 「두 갈래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의지-『소년이 온다』와 겹쳐 읽은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7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22, 47-74쪽.

노희호, 「한강 소설 속 유령의 형상과 기능-「눈 한송이가 녹는 동안」(2015), 「작별」(2018), 『작별하지 않는다』(2021)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93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22, 205-238쪽.

노태훈, 「연결되는 '우리'와 회복하는 '나'-최근 한국소설이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문학동네』 제110권, 문학동네, 2022, 224-241쪽.

손정수,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세계—역사적 사건을 모티프로 한 최근 한국소설에 내포된 로맨스의 계기와 그 의미」, 『문학동네』 제30권, 문학동네, 2023, 88-115쪽.

신수정, 「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채식'의 의미」, 『문학과 환경』 제9권, 2010, 193-211쪽.

양현진, 「한강 소설의 메타텍스트성과 치유의 서사-〈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2015), 〈작별(2018), 『작별하지 않는다』(20211)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8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4, 219-255쪽.

오태호,「역사적 비극을 서사화하는 '애도로서의 치유' 지향 소설 연구–김숨의 『떠도는 땅』(2020)과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2021)를 중심으로」,『한국문예비평연구』 제74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2, 7-41쪽.
윤정화,「한강 소설에 나타나는 '흰' 색채 이미지와 변이 양상」,『비평문학』 제78호, 한국비평문학회, 2020, 239-274쪽.
전성욱,「리미널리티 존재자로서의 '귀신'과 커뮤니타스: '사회적 드라마'로 읽는 한강 소설의 의미」,『감성연구』 제25호,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2, 291-324쪽.
전승민,「통증과 회복의 인간학–양자역학으로 읽는 한강」,『문학동네』 제112권, 문학동네, 2022, 140-159쪽.
조연정,「'광주'를 현재화하는 일」,『대중서사학회』 제33호, 대중서사학회, 2014, 101-138쪽.
황정아,「'문학의 정치'를 다시 생각한다」,『창작과비평』 제49권 4호, 창작과 비평사, 2021, 17-35쪽.

Abstract

Jeju 4·3 and the Cat Box
–The Meaning of the Quantum Metaphor in Han Kang's *We Do Not Part*

Woo Mi-yeong
Hanyang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narrative techniques and meaning of the Jeju 4·3 through quantum metaphors in Han Kang's novel *We Do Not Part*. The novel appropriates principles of quantum superposition, similar to "Schrödinger's cat", to illuminate historical events' representational impossibility from a new perspective. The recurring verb "to think" in the text functions similarly to the observer effect in quantum mechanics, showing how the act of thinking influences the state of existence of its object. The image of "snow" serves as a medium of transition, an expression of complex states, a symbol of circulation and connection, and a representation of how historical trauma

becomes embedded in individual lives. Characters in the novel function as “relational subjects”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observer and observed blur, experiencing the Jeju 4·3 not as a fixed interpretation but as a superposition of coexisting possibilities. Particularly, the “night in Secheonri” represents a time like quantum superposition before observation, where various interpretations coexist in open possibility. Through this approach, the novel presents an ethical-political stance that acknowledges the contemporaneity and multi-layered nature of past events beyond the impossibility of representing historical trauma, exploring new possibilities for interpretation and memory through history’s “empty spaces”.

Key words: Jeju 4·3, Historical Trauma, Schrödinger’s Cat, Observer, Relational Subject, Superposition, Quantum Metaphor

논문제출 / 2025.03.15.
논문접수 / 2025.03.16.
게재확정 / 2025.04.04.